2026-01-08

Economy Brief

3저+α(AI 투자) 효과와 FAFO

Economy Brief

[경제] 박상현 2122-9196 shpark@imfnsec.com

Check Point

글로벌 성장 모멘텀으로 제시했던 '3저(저금리, 저유가 그리고 저신용리스크(=유동성 확대))+α(AI 투자)' 효과가 예상보다 강해지는 분위기임

'타코(TACO)'아닌 'FAFO(까불면 죽는다)'로 대변되는 트럼프 대통령 행보를 고려할 때 금리인하 압박도 높아질 듯

'3저+α(AI 투자)' 효과가 당분간 주요 자산가격에 긍정적 영향

예상보다 강해지는 '3저+α(AI 투자) 효과'와 트럼프 대통령의 FAFO 행보

올해 글로벌 경제 흐름을 전망하면서 언급한 글로벌 경제의 주요 특징은 K 사이클(양극화)였고 글로벌 성장 모멘텀은 '3저+α(AI 투자)' 효과였다. 결론적으로 K 사이클(양극화) 현상이 더욱 고착화되고 있는 동시에 다행히 3저 현상, 즉 저금리, 저유가 그리고 저신용리스크(=유동성 확대) 중 저유가 및 저신용리스크 그리고 반도체 경기 흐름도 예상보다 강해지고 있다. 소위 3저+α(AI 투자) 모멘텀이 한층 강화되는 분위기다.

우선 유가의 경우 하향 안정기조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WTI 기준으로 유가는 56.27달러/배럴 수준까지 하락했다. 가뜩이나 글로벌 원유시장이 초과 공급상태인 상황에서 베네수엘라 사태는 유가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다. 전저점 수준인 55.27/배럴 달러는 물론 유가가 55달러 이하 수준으로 추가 하락할 여지가 커지고 있다. 참고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미국의 제재로 수출이 막힌 베네수엘라 원유를 인수해 대신 팔고 그 수익금의 사용처까지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베네수엘라의 에너지 자원에 대한 미국 통제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여기에 미국내 원유생산이 트럼프 대통령 의지처럼 추가 확대되고 러-우 종전 협상마저 현실화된다면 저유가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저신용리스크(=유동성 확대) 상황도 고무적이다. 당사의 1월 7일자 보고서(유동성, 다시 자산가격을 춤추게 한다)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각종 신용스프레드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동시에 글로벌 유동성 흐름도 재차 강화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말 금융시장에 큰 부담을 주었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CDS 프리미엄도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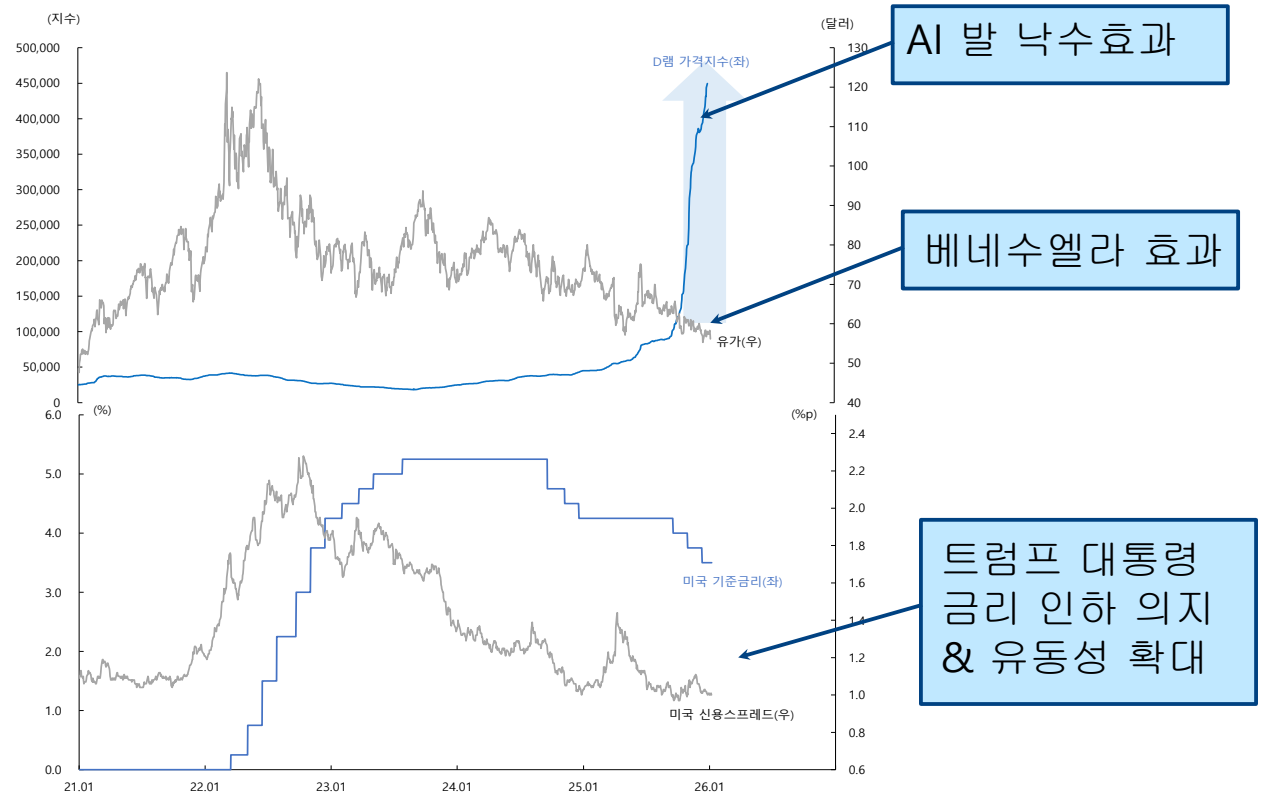
AI 투자 및 AI발 낙수효과도 당초 예상보다 확대되고 있다. 민간기업의 AI 투자 확대는 물론 미국과 중국 정부가 AI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흐름도 강화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정부 주도의 제네시스 미션 추진이다. 이에 따라 AI발 낙수효과가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3저 효과 중 다소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금리 추이다. 미 연준의 금리인하 사이클이 일시적으로 휴지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고 미국 국채 금리를 비롯한 주요국 장기 국채 금리는 상하방이 막힌 체 답답한 박스권 횡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발표되는 있는 미국 경제지표, 특히 고용지표의 경우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하를 압박하기는 다소 미흡하다. 고용시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하를 압박하기에는 다소 애매한 수준이다. 1월 FOMC 회의에서 금리가 동결될 확률이 높다. 그러나 미 연준의 금리인하 폭은 당초 예상보다 오히려 확대될 것으로 당사는 기대한다. 앞서 언급한 유가의 하향 안정세가 물가 안정에 긍정적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타코(TACO)'아닌 'FAFO(까불면 죽는다)'로 대변되는 트럼프 대통령 행보는 차기 연준의장 선임과 함께 미 연준의 금리인하 압박을 한층 높일 것이다. 파월의장 임기 기간 동안 1~2차례 금리가 인하된 이후 신임 연준의장 체제하에서 중간선거 이전까지 1~2차례 추가 금리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연준이사인 마이런 이사가 올해 1%p 넘는 금리인하가 정당하다고 주장한 것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싶다.

'3저+α(AI 투자) 효과'가 당분간 주요 자산가격에 긍정적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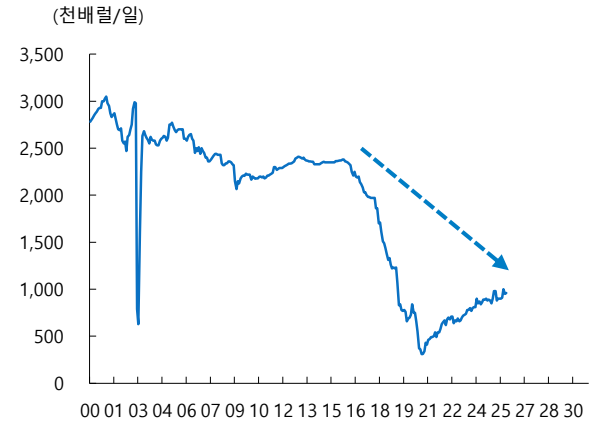
'3저+α(AI 투자) 효과'가 글로벌 경제에 만병통치약은 물론 아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경제의 K 사이클(양극화 현상) 해소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이 예상보다 강한 '3저+α(AI 투자) 효과'를 톡톡히 누릴 여지는 충분하다. 여기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FAFO(까불면 죽는다)' 행보는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지만 '3저+α(AI 투자) 효과'를 확대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림1. 당초 예상보다 '3저+α(AI 투자) 효과'가 강해지는 분위기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 추이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 아주 차갑지는 않지만 밋밋한 미국 일자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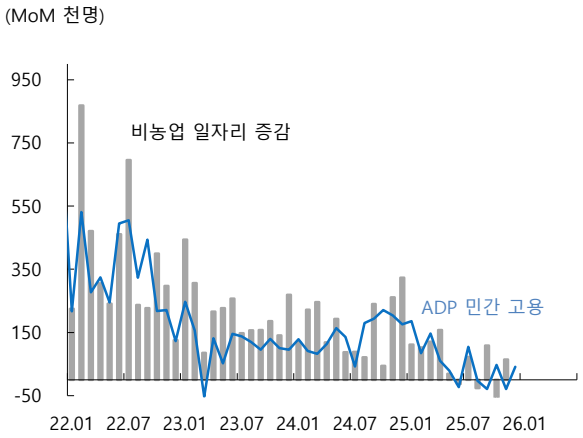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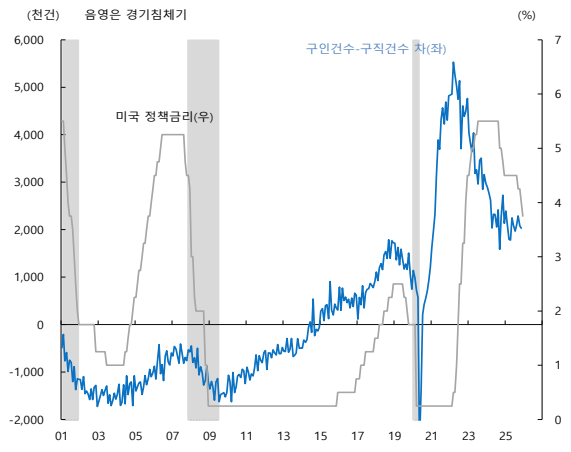


그림4. 구인건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추가 금리인하를 압박하기에는 미흡한 둔화 수준



자료: 백악관,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5. TACO에서 FAFO 국면으로 전환

Compliance notice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박상현)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